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함께 맞는 비’

들불처럼 번지는
남구의
착한 임대인 운동



“우산 대신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소상공인 아픔 겨안은 남구의 의인들



이상윤



김송권



이학수



정홍섭



김태균



이상건



강정호



정재훈



박태민

IS동서, 점포 103곳 3개월 임대수익 5억5000만원 포기

대연SK뷰힐스상가관리단 33명 동참 “더 도울 일 없다”

문현빌딩, 본인 사업 휘청대도 점포 10곳 임대료 내려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우리 사회의 의인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매출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남구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건물주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3월초 시작된 남구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4월 1일 기준으로 건물주·임대인 65명, 점포 271곳이 참여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에 먼저 불을 지핀 곳은 용호동 W스퀘어(W아파트 상가)의 (주)IS동서였다. 고동분담 차원에서 3~5월까지 3개월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내 점포 103곳의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3개월간 회사가 포기하는 임대료 수익은 5억5000만원에 달한다.

대연SK뷰힐스아파트 상가관리단(회장 강정호)은 점포 43곳 가운데 33곳의 점포 주인들이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2개월간 평균 20%를 낮췄다. 상가 내에서 월드클리닝은 운영하는 상가관리단 강정호 회장은 “전화를 건 점포주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임대료 인하운동에 흔쾌히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세입자와 따로 연락해 인하폭과 기간을 더 늘린 임대인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만동새마을금고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했다. 금고 측은 이사회를 거쳐 보유하고 있는 건물 두 채에 입주한 학원 등 5곳의 임대료를 3개월간 20% 낮추기로 결정했다.

경성·대학가에 위치한 청라빌딩을 소유한 건물주는 두 달간 5개 점포의 임대료를 30%씩 2개월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최고 변화가인 만큼 건물주가 양보한 임대수익이 4,000만원에 달한다. 청라빌딩을 관리하는 배경희(대명DNC건설링 근무) 매니저는 “건물주는 양산에 살고 있는데 먼저 전화를 걸어와 오랫동안 세입자들 덕분에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세입자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먼저 임대료를 깎았다”고 말했다.

문현빌딩 건물주인 이학수 대표는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자신의 사업이 휘청거리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큰 결정을 내렸다. 주류유통업을 하는 그는 코로나 사태로 지난 2월 한 달 주류 매출이 예년에 비해 80% 넘게 곤두박질쳤다. 이 와중에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 세든 임차인이 “장사가 너무 안 돼 잠시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고 하소연하자 부인과 논의 끝에 점포 10곳의 임대료를

■ 남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현황 (4월 1일 기준)

전통시장·상가	임대인	점포(개)	업종	인하폭	기간(월)	
					시작	종료
	65	271				
W스퀘어	아이에스동서	103	식당 등	50%	3	5
용호사거리	문**	4	식당 등	50%	3	-
청라빌딩	배**	4	미용실 등	30%	3	4
대연SK뷰힐스 상가관리단	강정호 등 33명	33	부동산등	20%	3	4
에이스빌딩, 대진아파트상가	김태균	6 2	음식점 등	20%	3	5
동명대창업보육센터	동명대	21	기계제조IT바이오	20%	3	6
석포로 29, 3층 석포로26번가길24 1~4층	감만동 새마을금고	5	학원 등	20%	3	5
석포로 28, 7080아지트 석포로 32, 민들레회원	김송권	11	음식점	전액면제	4	-
문현빌딩(수영로 33)	이학수	10	약국 등	10~15%	3	5
다보네가구물	이상건	17	가구 등	30%	3	4
대지빌딩(대연동61-7)	정재훈	5	옷집 등	10%	3	4
용호로14번길7	양선명	4	음식점 등	20%	3	4
대성빌딩	양정희	5	음식점 등	15%	3	4
에이스프라자	이경옥	2	노래방 등	20%	3	5
용호로14번길8	박태민	2	음식점 등	25%	3	4
거인빌딩	장성호	4	식당 등	7%	2	4
대명성빌딩	강희철	1		50%	2	-

임대인(건물주) 65명 271개 점포 참여

3개월간 10~15% 낮췄다. 한 달 1000만원 가까운 임대수익을 양보한 것이다. 임대료 인하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대표는 “동명상권의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어서 세금 감면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산 최대 가구전시장인 용호동 다보네가구(옛 천원가구백화점)의 이상건 대표도 다보네가구 건물에 입주한 가구 매장 17곳의 임대료를 2개월간

30%씩 낮췄다. 이 대표가 양보한 임대 수익만 3,600만원에 이른다. 20여년 전 IMF외환위기 때 도산 위까지 몰려다 주위 도움으로 가까스로 재기할 수 있었다는 이 대표는 “경기침체와 온라인쇼핑 등으로 가뜰이나 힘든 가구업계가 코로나 사태로 이중삼중고에 빠졌는데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지하는 경성대 대학로 건물주 모임 ‘용소골 골목발전 추진위원회’ 회원들.

“임차인이 살아야 건물주도 살아요”

대학로 건물주들 ‘착한 임대인’ 동참

코로나19 사태 계기 30여명 임차인 돕는 모임 결성

“임차인이 살아야 임대인도 살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 26일 오후 경성대 대학로에 있는 어느 지하 사무실로 중장년층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경성대 대학로에서 SK텔레콤경성대 직영점을 기점으로 ‘십자 골목(용소로 14번길, 수영로 298번길)’에 위치한 건물주들이다. 코로나19사태로 빈사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와 상권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지난 2월초 ‘용소골 골목발전 추진위원회(회장 양선명)’를 결성하고 이 날이 두 번째 모임이다. 30여 명의 건물주 가운데 이날까지 6

명이 임대료 인하를 약속했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태양빌딩의 양선명 회장은 “모임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건물주들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회장 역시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 5명에게 3, 4월 2개월간 임대료 15%를 낮췄다.

경남 남해에서 올라와 이날 건물주 모임에 참석한 강희철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임대료를 낮췄다. 그는 “임차인이 잘 되면 상권이 살고 그러면 건물가치도 함께 오르지 않겠느냐”며 남구가 전개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힘을 실었다.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새로운 백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

임대료 인하로 착한 임대인의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의 골목상권이 나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께서 '임대료 인하'로 임차인을 도와주시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꿈꾸고, **미래가 있는 도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참여하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 607-4476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이 사진은 실제 병원 전경입니다.



◆ 병원장 이재일(내과 전문의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卒)
◆ 치매, 뇌졸중, 파킨슨, 노인성질환, 물리치료, 의학 한의학 협진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 355-14 |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향 우측



상담문의 051-612-0075
www.grandnature.kr

유료광고